



보도시점 2024. 6. 26.(수) 12:00
6. 27.(목) 조간

배포 2024. 6. 26.(수) 09:00

소비자 체감도 높은 식품·외식 물가 상황 점검

- 한훈 차관,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점검 회의’ 개최
- 가격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6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 농식품부,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KREI, CJ제일제당, 롯데월드푸드, 농심, 오리온, 롯데칠성음료, 명륜진사갈비, 암샘김밥, 구이가, 더진국, 땅스부대찌개

이번 회의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국제 식품 원자재 수급 상황 및 가공식품·외식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일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해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하여 최대한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누적된 경영비 부담과 일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 계획을 밝힌 기업들과 수습차례 소통하여 인상 시기 이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및 인하품목 발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 제분4社(밀가루 △3.2~6.5%), 오뚜기(식용유 △5%), 동원(참치액 △12%, 상온죽 △11%), 롯데월드푸드(과자류 △11%), 롯데칠성(샘물 △10%)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의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외국인 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등을 업계에 설명하고,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식품·외식 물가에 대해 가격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훈 차관은 “그간 대외적으로 어려운 물가 여건과 누적된 경영비 부담 등에도 불구하고, 식품·외식업계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주요 식품 원재료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도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 할인행사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식품·외식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붙임 농식품부 차관 모두발언

담당 부서 <가공식품>	식품산업정책관실 푸드테크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수 (044-201-2111)
		담당자	사무관	정명희 (044-201-2123)
<외식>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재경 (044-201-2151)
		담당자	사무관	박태준 (044-201-2157)



- 지금부터 “6월 넷째주 농식품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농식품부는 매월 초 농식품 물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점검하고, 나머지 주간에는 채소, 과일, 축산, 식품, 외식 등 주요 분야별로 물가 상황을 점검하여 국민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이번주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분야는 ‘가공식품 및 외식’입니다.
-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여건 하에서 5월 가공식품 및 외식 소비자물가 동향을 살펴보면,
 - * 소비자물가 상승률(%): **(22.7) 6.3<고점>** → (23.1) 5.0 → (24.1) 2.8 → (4) 2.9 → **(5) 2.7**
 - 가공식품은 전년대비 2.0%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소비자물가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 **(22.12) 10.0<고점>** → (23.1) 9.7 → (24.1) 3.2 → (4) 1.6 → **(5) 2.0**
 - 외식은 상승폭이 점차 축소되어 전년대비 2.8% 상승하며,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 * 외식 물가상승률(%): **(22.9) 9.0<고점>** → (23.1) 7.7 → (24.1) 4.3 → (4) 3.0 → **(5) 2.8**
- 가공식품 분야는 그간 누적된 경영비 부담과 일부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6월 이후 일부 기업에서 불가피하게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부는 어려운 물가 여건 속에서 식품 물가 상승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업계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습니다.
 - 업계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하여 인상시기 지연, 인상률·인상품목 최소화, 인하 제품 발굴 및 자체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며 가격 인상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외식 분야도 식재료·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으로 일부 브랜드에서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외식은 제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성상 식재료비 외에 인건비·임차료 등 다양한 요소의 가격 인상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로, 소상공인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 흡수 여력이 부족합니다.

* 전체 사업체 중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87.7%,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 2.57명

○ 오늘 회의를 통해 식재료·인력·배달앱 등 업계에 부담을 주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외식 분야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와 소통을 확대하고,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 특히, 6월말 종료 예정인 농산물과 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및 신규 적용, 외국인 근로자(E-9) 시범 도입 조건 완화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 연말까지 농산물 14개(신규1, 기존2, 연장11), 식품 원재료 37개(신규7, 기존4, 연장26) 품목 적용

□ 다행히, 최근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국제 식품 원재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식품·외식 물가가 현재의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차관을 비롯하여 담당 실·국장이 업계를 자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추가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계도 가격 인상·인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오늘 참석해주신 기업·협회에서도 현장 애로사항과 정부에 건의할 규제개선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